

인구와 사회

10주차

가구, 한국적 세대 구분

시흥

- 1914년 시흥군 탄생
- 이후로 인근 시군들과 통합 및 분리 반복
- 1989년 시 승격 당시 인구 9만3천명
- 2020년 인구 54만4천명 – 외부에서 대규모 인구 유입
- 2022년 6월 인구 569,814명. 이중 외국인 55,886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흥시	총 인구(명) (a)	402,888	419,664	448,687	473,682	481,430	
	65세 이상 인구(명) (b)	31,650	34,511	37,552	41,403	43,814	
고령화지수 [(b/a)*100]		시 흥	7.9	8.2	8.4	8.7	9.1
		경기도	10.8	11.4	11.9	12.5	13
		전 국	13.5	14.2	14.8	15.5	16.1

행정동	전체 인구 수	65세 이상	65세이상비율%
계	481,430 (100%)	43,814(9.1%)	9.1
대야동	38,533	4,413	11.45
신천동	37,401	4,736	11.66
신현동	10,185	1,705	16.74
은행동	49,196	4,138	8.41
매화동	12,405	1,944	15.67
목감동	43,067	4,244	9.85
군자동	22,687	2,974	13.11
월곶동	15,702	1,833	11.67
정왕본동	20,368	1,503	7.38
정왕1동	22,576	1,771	7.84
정왕2동	32,075	2,358	7.35
정왕3동	23,114	2,062	8.92
정왕4동	21,594	1,665	7.71
배곧동	70,330	2,480	3.53
과림동	1,955	544	27.83
연성동	24,309	2,368	9.74
장곡동	17,308	1,142	6.60
능곡동	18,625	1,934	10.38

과제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 개별인구 문제

시장이나 국가정책의 관점에서는?

- 인구보다 가구가 중요한 경우가 많음

가구 단위로 소비되는 재화?

- 집, 자동차, 생필품, 가전제품, 가구 등

가구 수의 변동

2000~2019

인구 – 470만 명 증가

가구 – 560만 호 증가

개별로 분화하는 가구가 많았음을 의미

2020년부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가구는
당분간 증가할 예정 [도표2-4]

시장에 주는 시사점? – 가구가 소비의 단위가 되
는 재화시장은 성장 가능성

인구 다양성

다양성 in 인구학 – 인구를 이루는 축이 다양해질수록 높은 다양성

성, 연령, 인종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한 사회에 골고루 분포할수록, 인종이 다양할수록 사회의 다양성이 높다. 살아가는 조합의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다양성이 높다.

가구 다양성

가족 vs 가구

1인가구의 증가

1인가구 1000만 호 육박

1인가구 만족도

1인가구와 빈곤

Life Segment

Life Stage vs Life Segment

[표2-5] 가구 다양성과 세그먼트

세그먼트의 다른 라이프스타일

세대에 대한 높은 관심

기대수명 증가

세대들의 공존/동거 기간 증가

커뮤니케이션 증가

의견 충돌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산 기간이 늘어난 첫 세대가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 세대

세대의 이해는 다른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

세대 구분의 기준

- 합계출산율: 형제가 몇 명인 환경?
- 출생아 수: 한 반에 몇 명이 공부?
- 대학 진학률 및 입시제도: 어떤 제도 하에 몇 명이 경쟁?
- 취업 시기의 경제 이슈: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 여성의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 연령별 혼인률: 세그먼트의 특징 및 크기
- 청소년기에 누렸던 대중문화: 가치관 형성기의 문화 요소
- 기술환경의 변화: 스마트폰, SNS 활용 등

세대 구분

- 세대명(출생연도)/역사적 사건/인구사회학적 특징
- **산업화세대**(1940~1954)/한국전쟁, 베트남전/실버산업세대
- **베이비붐1세대**(1955~1964)/새마을운동/센서스 시작, 합계출산율 5~6, 대학진학률 20%대
- **베이비붐2세대**(1965~1974)/민주화운동/가조계획 이후 세대, 합계출산율 3~4, 대학진학률 30%대
- **x세대**(1975~1985)/대중문화시대/수능 세대, 여성 교육수준 급상승, 자녀 수 감소 본격화, 대학진학률 급증
- **밀레니얼세대**(1986~1996)/올림픽/저출산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대학진학률 80%대(여성>남성)
- **z세대**(1997~)/월드컵, 외환위기/가구분화 증가, 초저출산

베이비붐 세대

- 세대 구분의 어려움
- 1955년~1974년생. 미국과 차이
- 베이비붐 전기와 후기 세대는 TFR과 영아사망률 큰 차이 – 1세대와 2세대 구분 필요
- 베이비붐 1세대(1955~64)
 - 높은 TFR, 높은 영아사망률(60/1000)
 - 혹독한 유년기, 대학진학 20%(남성위주), 맨주먹 성공 신화
 - 큰 인구규모(96~100만/연령 출생, 67~89/연령 생존) – 사회의 큰 변화를 또 한 번 이끌 세대
- 베이비붐 2세대(1965~74)
 - 90~100만/연령 출생. 낮아진 TFR(3~4명). 대학진학률 30%대
 - 1세대가 경제성장 주역이라면 2세대는 정치변동 주역
 - 정년 연장 혜택 가능성. 자녀가 아직 어린 Z세대이므로 정년 연장에 큰 영향 가능

X세대

- 1975~85년생. 대중문화를 선도한 세대
- 80만 명대 출산 – 이전 세대보다 급격히 감소
- 대중문화 향유 – ‘서태지와 아이들 ’
-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진학률 급등. 여성의 진학 보편화
- 그러나 대학 진학이 성공을 더이상 보증하지 않음
- 75년생 대학 졸업 무렵 IMF, 82년생 졸업 무렵 금융위기
- 취업 어렵고, 남성 위주 노동시장
- 강한 진보적 가치 – “사회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 베이비 붐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사회질서에 저항
-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난 ‘1코노미’ 의 효시

밀레니얼 세대

- X세대와 구분 어려움
- 1986년생부터
- ‘교육’ 변수
 - 7차 교육과정 시작. ‘초등학교’.
 - 우리나라 색채 강한 교육. 영어 의무교육, ‘세계화’ 교육 세대
- 남아선호 정점 – 성비 116.5
 - 그러나 여성 대학진학률이 남성에 역전(82.4% vs 81.6%, 2009)
 - 딸 낳기는 기피했지만 일단 낳은 딸은 최선을 다해 키움
- 아이폰 보급. 인터넷 대중화. SNS 생활 시작 –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의 ‘공유’ 가치 등장
- 노동시장에서 이전 세대의 큰 인구규모에 눌림. 직장 다니면서도 스펙 쌓아야 함. 경쟁이 극심해 ‘게임의 규칙’ 중시
- X세대 ‘정의로움’ 가치, M세대 ‘공정성’ 가치

밀레니얼 세대

- 부모가 주로 베이비붐 1세대
 - 안정적인 환경, 아낌 없는 투자 혜택
 - ‘완벽한 부모’ 신드롬의 중심이 되는 세대
- 높은 퇴사율
 - 경제적 지원을 해줄 부모의 존재
 - 부양가족 없음
- 이전 세대와 확연히 구별되는 성장배경과 가치관, 특유의 재치와 트렌디한 소비력으로 우리나라 변화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음

Z세대(와 알파세대)

- Z세대의 키워드 – 스마트폰, 다양성, 글로벌
- 1997년 이후 출생 세대
- 부모의 연령대가 다양
- 국가별 차이가 줄어든 세대 – 전세계 문화적 동질감
 - TFR [도표2-9]
 - 교육수준의 고른 상승
 - 2006년 스마트폰 등장 – 의사소통이 국경 초월
 - 2017 전세계 16~20세 98%가 스마트폰 사용
 - 유튜브, 넷플릭스 등 통해 영상 공유
 - SNS
- 글로벌 동질성

- 국내 인구 비중은 작으나 2025년부터 세계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인구집단이 됨
- 이전 세대와 달리 지구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와 가치관에 교육수준도 높고 큰 규모라는 것은, 미래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Z세대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노동과 부가가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

z세대의 묘사. 동의? 부동의?

[은밀하게 과감하게 – 요즘 젊은 것들의 퇴사]